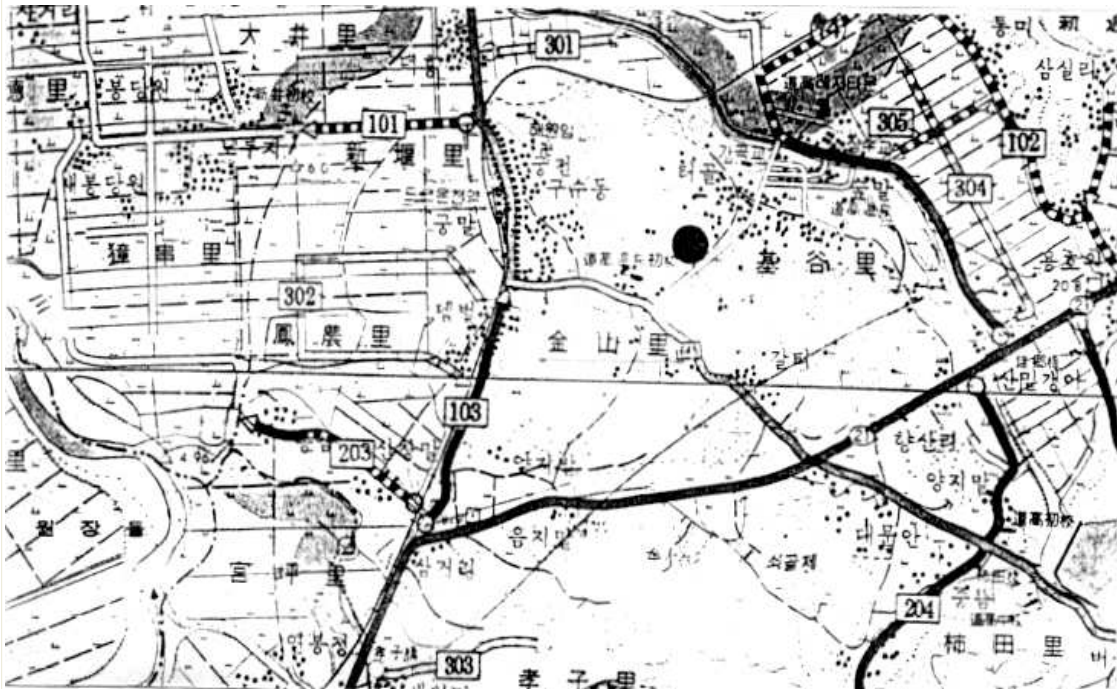


금산리·金山里

금산리·金山里

금산리는 도고면의 한 마을로 1리와 2리로 구분된다. 금산1리는 산우물로 음지말과 양지말 마을로 이루어져 있고 금산 2리는 점촌, 산직촌, 상여벌, 셋골로 이루어졌으며 점촌이 가장 크다. 마을의 가구수는 167호로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의존하며, 축산업에도 일부 종사하고 있다. 특산물로는 점촌에서 생산되는 토기가 있으며 신창군 남성면의 지역이었던 것이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금곡리, 음산정리와 양산정리, 갈티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금곡과 산정의 이름을 따서 금산리라하여 아산군 도고면에 편입된 것이다.

<금산리 위치도>



☒ 산우물, 점촌마을(금산리)

금산1리는 산우물 마을이라 하며, 산우물 마을은 양지말과 음지말로 나뉜다. 산우물에서는 두리봉이라 불리는 산이 있는데 이 산엔 그림자로 가려지는 곳이 음지말이고 가려지지 않는곳이 양지말이 된다.

금산2리를 점촌 또는 갈티라고도 부르며, 점촌 마을은 금산2리의 주된 마을로 산직촌, 상여벌, 셋골로 이루어져 있으며 셋골이란 마을이 쇠꼬리(소꼬리)의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며, 상여벌은 예전에 이곳에서 상여가 지나가다 힘이 들어 쉬어갔던 곳이라 한다.

<조사당시 금산리 마을 관련 사진 >



1) 위 치

산우물 마을은 위도 36-44-50, 경도 126-52-20인 지역에 위치해 있고, 온양에서 신창 휴게소를 지나 도고로 가는 21번 도로를 따라가면 신통리와 기곡리를 지나 삼거리에 둘러싸인 마을이다.

점촌 마을은 산우물 마을을 지나 45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금산 소류지가 있는 맞은편 마을이다.

2) 현 황

산우물 마을은 남자 131명, 여자 125명으로 남자가 많은 편이며, 총 256명이 살고 있고 호구수는 73호에 이른다. 주민들의 99.7%가 농업에 의존하고 0.3%가 축산업에 종사한다. 점촌마을은 총 318명으로 남자가 154명, 여자 164명으로 호구수는 94호에 이른다. 주민들의 97%가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축산업은 3%에 이른다.

- 인구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남	여
산우물 마을	256명	131명	125명
점촌 마을	318명	154명	164명

- 생 업

구 분 마을명	계	농 업	축 산 업	기타서비스업
산우물 마을	100%	99.7%	0.3%	-
점촌 마을	100%	97%	3%	-

산우물 마을의 농경지는 논 46.4ha, 밭 8.3ha로 논이 훨씬 많은 편이며, 농기계는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콤팩트, 트랙터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을 문화시설로는 앰프시설이 갖춰진 마을회관이 1개소 있으며, 농악기구도 갖추어져 있다. 기타 시설로는 위탁영농회사 1개소 농기계 보관창고가 1개가 있다.

점촌 마을은 농경지 면적을 보면 19.7ha, 밭 7.3ha로 농경지가 다른 마을에 비해 적은 편이며, 경운기가 가장 많고 건조기등 다른 농기계도 약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앰프시설을 갖춘 마을회관 1개소가 있으며 마을 회관에 농악기구를 약간 보유하고 있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논	밭
산우물 마을	54.7ha	46.4ha	8.3ha
점촌 마을	27ha	19.7ha	7.3ha

- 문화시설

구 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기타문화시설
산우물 마을	1개소	1개소	-
점촌 마을	1개소	1개소	-

- 기타시설

구 분 마을명	계	농기계보관창고	위탁영농회사
산우물 마을	2개소	1개소	1개소
점촌 마을	-	-	-

산우물 마을의 성씨별 분포를 보면 김씨 23%, 정씨 22%, 이씨 10%, 박씨 8%, 최씨 8%, 기타 성씨 29%로 조사 되었고, 연령층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점촌마을의 성씨별 분포를 보면 김씨 17%로 이씨 1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성씨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연령층은 40대~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김씨	정씨	이씨	박씨	최씨	기타
산우물 마을	73호	17호	16호	7호	6호	6호	21호
점촌 마을	94호	26호	2호	11호	8호	6호	41호

- 최고령자

산우물 마을의 최고령자는 신은 할머니로 90세이시며, 점촌 마을의 최고령자는 손백련 할아버지로 88세이시며, 아직도 정정한 편이시다.

3) 자연경관

산우물 마을 위에는 도고산의 한 부분으로서 도고산 밑에서 내려와 이곳 산우물에서 두리두리 뭉쳐진다 하여 붙여진 두리봉이 있으며, 이 산에 그림자로 가려지는 곳이 음지말, 가려지지 않는 곳이 양지말로 마을 앞으로는 점촌에서 산우물로 흐르는 개천이 있다. 양지말과 음지말은 21번 국도를 마주보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장항선로가 있다.

점촌은 음지말 바로 옆에 있는 동네로 금산 소류지에서 시작하는 개천이 마을로 흐르고 있으며, 예전에 웅기공장이 밀집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다.

4) 마을변천 과정

금산리는 본래 신창군 남성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금곡리, 음산정리와 양산정리, 갈티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금곡과 산정리의 이름을 따서 금산리라하여 아산군 도고면에 편입되었다. 금산1리는 산우물이라 불리웠다가 산정리, 산정마을을 거쳐 금산리가 되었다.

5) 입 향

산우물 마을은 음지말에서는 온양 정씨가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정낙일 할아버지가 4대째 손자와 함께 살아계신 것으로 보아 형성연대는 서기 1750년대경 약 250년전으로 추측되며, 양지말에서는 연안 김씨가 거의 같은 시기에 터를 잡고 현재 4대째 살고 있다.

점촌마을은 6.25전후하여 생긴 마을로 웅기 기술자인 오 화영씨가 터를 잡고 시작한 것으로 보아 마을의 형성시기는 서기 1950년경 약 50여년전인 것으로 추측된다.

6) 지 명

十 산우물 마을의 지명

- 산우물 : 삼거리 북동쪽에 있는 마을. 갈재 밑이 되는데 큰 우물이 있음
 - 양지말 : 산정리의 양지쪽에 있는 마을
 - 음지말 : 산정리의 음지쪽에 있는 마을
 - 금산 : 산정리 남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 111.7m임.
- 수령자리 : 수령이 많아 소가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하여짐.
 - 개천답논 : 여름에 비만 오면 침수가 되었다고 전하여짐.
 - 마당배미논 : 모양이 마치 둥그러니 마당처럼 생겼다해서 유래됨.
- 가재터골 : 두리봉 바로 옆에 개울이 있었는데 가재가 상당히 많이 났다 함.
- 양해다리 : 금산1리와 2리사이에 위치한 다리. 일본놈들이 회를 가지고 다리를 진다해서 붙여진 이름임.
- 두리봉 : 도고산의 한 부분으로 도고산 밑에서 내려와 산우물에서 두리두리 뭉쳐진다하여 유래되었음.
 - 갈티(갈재) : 양지말 동쪽에 있는 마을로 산에 흙이 많이 있었음.
- 삼거리 : 봉농리 경계에 있는 마을. 세 갈래의 큰 길이 있어 삼거리라 함.
 - 효자교 : 삼거리 남쪽에 있는 다리
 - 금산소류지 : 금산리에 있는 만수량이 21천톤인 소류지.
 - 금산교 : 효자교 남동쪽에 있는 다리.

十 점촌마을의 지명

- 갈티점촌 : 갈티 동북쪽에 있는 마을. 그릇점이 있음
- 셋골 : 점촌의 남쪽에 있는 마을. 소류지가 있음. 소의 꼬리의 모양을 닮았다고 유래 됨.
- 씻골 : 점촌의 남쪽에 있는 마을. 전에 금이 났었다 함.

- 산직촌 : 산직이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옴.
- 상여벌 : 예전에 이곳에서 상여가 지나가다 힘이 들어 쉬어갔던 곳이라 함.
- 둔병지기 : 예전에 이 논에 둔병이 있었다고 전해짐.
- 고라실 : 수령이 있어 물이 많아 항상 물이 마르지 않아서 이 근처에서 최고였다고 전해짐.
- 점골 : 셋골 옆 남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 옹기점이 있었다하여 점골이라 함.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음.)

7) 전 설

十 능구렁이 전설 (산우물 마을)

어떤 소녀가 나물을 캐다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길을 잃은 소녀를 울면서 산을 헤매다가 어떤 산적 무리들을 만나게 되었다. 소녀를 붙잡으려던 산적들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소녀에게로 다가가지 못하고 뒷걸음질쳐 도망갔다. 사냥하러 왔다가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된 도령은 너무 이상하여 그 소녀에게로 다가가다. 소녀는 무엇인가 두려움에 차 있었다. 그 소녀는 울고 있었다. 구슬같은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다. 도령은 그 까닭을 묻지 않을 수 없어 " 왜 그러시오. 무슨 곡절이 있는 것한데요?" 그러나 대답이 없다. 소녀는 쓰러져 있었다. 도령은 하는 수 없이 소녀를 메고 산을 내려왔다. 소녀는 죽은 듯한데 가느다란 맥박이 뛰고 있었다. 총각은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굳어져 온갖 정성을 다 드렸다. 그날은 날이 어두워 내일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총각은 혼자였다. 오두막 집을 하나 가지고 사냥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 다음날로부터 총각은 어떤 노인이 나타나 " 저 바위에다 5일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빌어 보시오."하는 말에 총각은 열심히 바위에다 노구매를 저어놓고 닳새동안 빌었다. 총각도 기진맥진 하여 한번은 포기하려고도 했었다. 그러나 그 처녀의 얼굴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돕고 싶은 마음이 솟아 올랐다. 5일동안 빌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무엇인가 철썩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벌떡 깨어보니 능구렁이가 바위에 죽어 있었다. 총각은 하도 신기해서 하늘이 도와주신 것이구나 하면서 능구렁이를 가지고 처녀가 있는 집으로 와서 약을 만들어 처녀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힘을 못쓰던 처녀가 일어나 앉았다. 처녀는 미안한 듯이 사과와 말을 하고 사연을 하나 하나 말하기 시작했다. 그 소녀는 어느 양가집 규수였다. 그런데 집안이 그 소녀 때문에 망한다는 점장이와 계모의 말만 믿고 자식을 내 보냈다 한다. 그 규수는 하는 수 없이 나물을 캐다 파는 노릇을 하면서 생애를 이어 나갔다. 모든 고난을 참고 이기면서 살아가는 동안 그녀에게 이상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나쁜 사람이 다가오기만 하면 악한 사람은 힘이 쏙 빠지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다. 어떤 산적은 기절을 하고 일어나지 못했다는 말도 한다. 내용을 안 총각은 우리 같이 살자고 청했고 소녀는 자기가 생명을 구해준 은공으로 밥을 해주며 빨래도 해 주겠다고 했다. 그 후로 총각과 규수는 혼인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한다.

十 산직촌의 전설(점촌마을)

이조시대에 한 참판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 그 자손의 묘자리를 보고 험한 길을 걷고 또 걸어 닿은 곳이 이곳 금산리이다. 마침 날이 저물어 하룻밤 쉬려고 집을 구하니 집은 보이지 않고 웬 산중턱에서 불빛이 반짝거려 쉴 곳을 찾았구나 하고 단숨에 올라가 주인장을 부르니 웬 하얀 수염의 노인이 나오면서 반갑게 맞이하여 들어가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니 쌓였던 긴장이 풀리고 고픈 배를 채우니 졸음이 오기 시작하여 금방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얀 노인이 나타나 하시는 말씀이 " 잘 오시었네 이제부터 이 마을을 지켜주게" 하며 금방 사라졌다. 다음날 그 사람은 간밤의 꿈을 생각하며 사방을 두리번 거리니 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를 보니 명당자리도 보통 명당자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그길로 곧장 집으로 돌아와 그 자리에 자기 아버지를 안장시켰다. 며칠 뒤에 와 보니 그 부근에 웬 중년부부가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 그 부부는 어찌나 금술이 좋은지 모두가 부러워 할 정도였다. 그래서 그는 마침 잘 됐다고 하면서 그 부부를 불러 청하였다. " 여보게, 내 이 마을에 살면 당연지사 아버님의 묘를 지키거늘 천리길을 걷고 또 걸어야 이 땅에 도착하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찌하나 그러니 이왕 이곳에 살 것이면, 우리 아버님의 묘를 지켜주게. 그럼 내 자네에게 참봉(벼슬이름) 자리를 하나 드리리다" 하니 그 부부는 좋아 하면서 얼른 승낙하였다. "서방님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꼭 대감마님의 묘를 지키겠습니다. 하였다. 그때부터 민가가 늘기 시작하여 마을을 이루었

다. 그 참봉이 지나가기만 하여도 거마를 하지 못하였고, 하마를 했으며 그 참봉을 깎듯이 대하고 예의를 지켰다. 또한 그 참봉은 그 묘를 하루에도 몇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그리하여 참봉자리를 얻은 산지기를 중심으로 하여 마을이 시작되었다고하여 산적촌이라 불리었다. 한다. 그러나 항상 좋은 해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지니 민심이 흉해지고 산적들이 들끓었다. 그래서 이곳으로 시집 오는 사람은 시집오기를 꺼려했고 밖에 나가기를 꺼렸다. 어느날 아침 그 참봉이 묘를 지키는데 묘가 조금 파헤쳐져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상하다. 산적의 짓일까? 하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참봉은 그날밤 그묘를 지키기로 했다. 때가 밤이니만큼 무섭고 추웠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니 산적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묘를 파헤쳐 참판과 같이 묻었던 유물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때 참봉이 나타나서 : 네 이놈들 감히 그 묘가 어떤분의 묘라고 파헤치느냐?" 하며 달려 들었다. 어찌 상대가 되겠는가! "똥이라고 이놈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더니" 하며 여러산적들이 달려들어 참봉은 그만 죽고 말았다. 지금도 그 참판의 묘는 나 보란듯이 동그렇게 놓여 있고 그 산지기의 넋을 기리는 나무가 우뚝서 있다.

十 용바위

이 마을에 용석이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다. 비록 부유한 가정은 아니지만 행복하였다. 그러나 이 부부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근심걱정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자식이 없는 걱정이었다. 남편은 부인을 안심시키느라고 격려의 말을 건네주곤 하였지만 부인은 마을이 편할 날이 없었다. 이들의 내화 내용인즉 밝은 달밤에 방안에서 마주 앉아 " 여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있지 않소? 당신이 아주 아기를 못 낳은 것도 아니잖소.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여보 저는 이제 틀렸어요. 차라리 다른 여자를 택하세요. 언제든지 저를 물려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 여보 왜 이러는 거요! 우리가 자식이 없다고 이 한 세상 못사는 것도 아니잖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기다려 봅시다. ""여보...." 어느날 너무도 화창하고 따뜻한 봄날 산에는 산나물이 너무 많아 정신없이 나물을 캐다가 너무 더워서 사방을 둘러보니 나무 그늘을 안고 있는 바위 하나가 놓여 있어 거기서 잠깐 쉬기 위해 앉았다. 때가 봄이니 만큼 안 졸릴수가 없었다. 그만 부인이 깜박 졸다가 잠이 들어 버렸다. 꿈을 꾸었던지 꿈속에 하얀 노인이 나타나더니 천둥 번개를 일으키며 용을 불렀는데 그 용이 큰 여의주를 입에 물고 이 부인에게 떨어뜨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부인이 깜짝 놀라 깨보니 꿈이었다. 하도 괴이하고 신기하여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내려가 남편한테 사실을 고하였더니 남편이 좋아라 하며 부인을 덥석 껴안는지라 몇 달 후 꿈이 용꿈이니 만큼 태기가 있어 부인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였다. 부인이 꿈꾼 뒷날 남편은 부인이 말하는 장소에 가 보았으나 바위는 보이지 않고 조그만 돌멩이만 하나 놓여 있을 뿐이었다. 이상하였다. 부인의 배가 불러오면서 그 돌은 자꾸 커졌다. 남편은 매일 같이 커지는 돌을 이상히 여겨 그 사실을 부인한테 말하였다. 부인도 이상하다고 하면서 "여보 아무래도 그 바위와 무슨 관계가 있나봐요. 우리 바위도 정성껏 보살피고 아껴요!" 하고 약속했다. 드디어 부인이 진통을 느끼고 아기가 태어날려고 할 때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더니 그 바위에서 커다란 용이 하늘로 올라 가는 데 그 부부의 집주위를 빙빙돌고 가는 것이었다. 그때 부인은 옥동자를 낳았다. 아기가 점점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 훗날 그 바위에서 용꿈을 꾸고 옥동자를 낳았고 이 남편의 이름이 용석이고 용이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여 용바위라고 불리운다.

十 묘지송의 전설

금산리에 있는 공동묘지의 근처 구멍이 나 있는 바로 옆에 큰 소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다. 어느날 어느 청년이 자정이 넘어서 그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조금 가다보니 무슨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흰 옷을 입고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한 여인이 뒤를 따라 오고 있는 것이다. 그 청년은 겁에 질려 도망가려 했지만 발이 잘 떨어지지도 않고 가도 가도 여인은 뒤에 따라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청년은 결국 그 여인에게 의해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후에도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귀신에게 혼을 빼앗겨 현장에서 죽지 않더라도 결국 집에 와서라도 죽고 마는 것이다. 때문에 그 근처 마을은 한두집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폐허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마지막 남은 이 집도 이곳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도 이상하게 여긴 그 집의 한 노인이 이제 살만큼 살았고 이제 자신이 할 일은 자기나 후손들이 묻힐 고향을 지키며 잘 살수 있게 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 노인은 그 귀신을 잡기로 결심하고 캄캄한 밤에 가족도 모르게 낮을 들고 혼자 처녀귀신이 나온다는 소나무 밑으로 갔다. 그곳은 낮에도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길이었다. 그 소나무 밑으로 다가 가면서 소나무를 올라다 보니 이게 웬일인가! 전하는 말 그대로 흰

옷 입은 귀신이 나타난 것이다. 금방 귀신이 자신을 덮어 누르는 것 같았다. 도망가려 해 보아도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다. 순간 정신을 가다듬었다. 내가 이럴때가 아니지. 저 귀신을 잡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저 귀신 때문에 죽어갔고 또 내 마을을 떠나지 않았던가. 각오가 되어 있는 지금은 귀신이 덤빈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노인은 낮에 힘을 준 채 귀신을 향해 다가갔다. 귀신은 소나무에 기대 있었다. 노인은 온 힘을 다해 낮으로 내리쳤다. 그리고 낮으로 찍어 올렸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일까? 귀신으로 안 흰 물체는 귀신이 아니다. 찢어진 형겅 조각이었다. 밤에 무서움에 쫓겨 그곳을 달려가던 사람이 옷이 찢겨 걸쳐 있는 것도 모르고 그에 놀라 까물치고 죽고 만 것이었다. 그 후 이 마을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하나 둘 모여 들었으며, 귀신 아닌 형겅을 잡은 노인은 그의 유언에 따라 큰 소나무 근처에 모셨다.

十 열사 최병수 선생의 독립운동에 관한 일화

열사께서는 자식에게는 언제나 인자하고 자상한 아버지였다. 그러나 이 나라가 풍전등화 격에 놓인 즈음에 최 병수씨는 나의 이 젊음을 기꺼이 조국에 바치겠노라고 큰 뜻을 품고 집안일을 부인에게 맡기고 몇몇 동지들과 독립운동에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밤늦게 떠나는 최병수씨와 부인 김씨와의 헤어지는 장면에서 부인 김씨는 독립운동가의 아내답게 이렇게 말했다.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큰 뜻을 품고 펴지도 못한다면, 어찌 사내대장부라 하겠습니까? 집안 걱정은 조금도 마시고 어서 떠나세요. 사사로운 감정은 저버리시고... 그리고 이 나라가 독립하는 밝은 날 뵈겠어요. 어서 떠나세요."

"부인의 그런 말씀이 나에겐 너무도 많은 용기를 북돋아 주는 구려. 그럼 부인만 믿고 떠나겠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유 준호란 사람을 찾아가요. 내가 부탁을 해 났으니 어려운 일은 잘 돌보아줄 것이요. 그럼..." "....."

김씨는 밤자욱 속으로 떠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그해 4월 4일 선장, 도고, 신창 등 3개 지역 천여명의 뜻있는 젊은이들을 모이게 하여 이렇게 최 병수는 말한다. "이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인 즈음에 우리 이 나라의 방패가 되어 나라를 구함시다. 나라가 없는 국민은 노예에 불과합니다. 이 젊음을 불살라 저들의 만행을 널리 알리며, 우리의 주권을 회복함시다. ! 남녀 노소 가리지 말고 저들의 총칼 앞에 정정당당히 우리의 권리를 부르짖읍시다." 이렇게 최선두에 나선 최 병수씨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 시위를 선도하기까지 이르렀다. 이 사실을 안 그 당시 헌병들의 주민학대는 말할 수 없이 심해 갔다.

그때 최 병수씨는 헌병들이 주거하고 있는 헌병 주재소에 방화를 기도하다가 그만 실패로 돌아가 주범으로 쫓기게 되는 몸이었다. 그리하여 고향을 등지고 피신처를 떠나게 되었다. 이를 안 일본 헌병들은 최 병수의 집에 헌병들이 들이 닥쳤다. "문 열어라 ! 어서 문 열지 못하겠나? 그렇지 않으면 이 문을 부수 버리겠다." 헌병 대여섯 명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 안에 있던 최 병수씨의 아내 김씨는 놀란 아이들을 달래 방으로 들여 보내고 문을 연다. 안으로 들어온 것은 헌병들 중 대장인 듯 싶은 콧수염이 알상 굳게 난 사나이가 졸병인 듯 보이는 헌병들에게 명령을 한다. "애들아 집안을 살살이 뒤져라. 쥐구멍까지도, 알았냐?" "예" 헌병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한다. 깜짝 놀란 김씨는 "아니 대체 무슨 일이기에 집안을 뒤진단 말이냐?" "아! 아직도 모르나? 어디 있소? 최 병수 그놈은? 당신 남편인가 뭔가하는 그놈 말이요." "아니 뭐라고 이 더러운 돼지 같은 놈아" 헌병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 "아니 이 아주머니가!" 하며 자기의 뺨에 묻은 침을 닦는다. 그리고 이내 이상야릇한 웃음을 띠며 "종소 그럼 애들아!" 수색하던 졸병들을 부른다. "아무데도 없는데요." 졸병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자 대장인 듯 보이는 헌병이 이제는 김씨를 가르키며, "찾을 것 없다. 저 여자를 끌고 와" 하고 졸병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대문을 나서려 할 때 방에 있던 최 병수의 아버지께서 이젠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이놈들아!" 하며 헌병들 손에 끌려가는 김씨를 가로 막아선다. "아니 저 늙은 영감은 어디서 나왔어. 저리 비키지 못해." 대장인 듯 보이는 헌병이 총부리로 그 노인을 후려 갈긴다. 김씨는 "아버님! 이놈들아 우리 아버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다고 손찌검까지 하느냐. 너희는 부모도 없더란 말이냐" "지체할 새 없다. 저 여자를 끌고 따라와."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방에서 아이들과 시어머니가 뛰어 나온다. 시어머니께선 시아버님을 일으키며, "영감!" 아이들은 끌려가는 어머니에게 매달려 "우리 어머니를 왜 끌고 가세요. 우리 어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다구요?" "아니 이젠 요것들까지" 채찍을 꺼내더니 후려 갈긴다. 김씨는 황급히 "아니, 이놈들아! 어린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따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때

시어머니가 김씨를 막으며 "안된다 이놈들아" " 아니 이 할망구가 저리 비키지 못해." 총으로 떠다 민다. " 어머니!" " 어서 끌고 따라와 " 아가!" 시어머니의 음성, 아이들은 끌려가는 어머니에게 매달린다. 그때마다 헌병들은 채찍으로 아이들을 때린다.

이렇게 하여 김씨는 헌병들의 손에 이끌리어 헌병 주재소까지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갖은 고문을 가해도 김씨는 최 병수씨의 행방을 말하지 않았다. 반죽음이 된채로 며칠 지난 저녁때에서야 비로소 주재소에서 풀려 나오게 되었다. 대문을 들어서서 김씨는 정신을 잃어 쓰러지고 만다.

그때 아이들이 " 어머니!" 하며 달려와 어머니의 참상에 너무도 분노를 느낀다. " 이 놈의 헌병놈들! 내가 가만히 둘 줄 아느냐?" 옆에 있던 몽둥이를 집으며 " 이 몽둥이로 그제" 그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버선발로 나와 쓰러진 며느리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 " 아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애들아, 어서 어머니를 부축해서 방으로 모셔라." 왜놈의 헌병들은 이렇듯 최 병수씨의 집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와 최 병수씨의 가족을 골고루 돌려가며 모진 고문을 가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가족은 단결하여 최 병수씨의 행방을 말하지 않았다.

이 집안 소식을 들은 최 병수는 " 이제 참지 못하겠다"하여 헌병들이 없는 틈을 타 밤에 몰래 집에 오게 되었다. " 석아, 석아!" 나직히 아들의 이름을 부른다. 그때 부인 김씨는 남편의 소리임을 깨닫고 반가운 듯 밖으로 나간다. 남편과의 만남, 이 얼마나 반가운가, 그러나 부인은 남편을 외면하며 " 이길로 어서 떠나세요... 지금 집 주변엔 헌병들이 감시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 알고 있어. 그러나 집안일은...." "떠나실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나라가 독립되는 밝은 날 뵈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잊으신 건 아니시겠조? 그럼 어서 떠나세요." "아버님 어머님도 잘 있나,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아이들과 어머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 어서 떠나세요. 당신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두손 모아 빌겠어요." " 고맙소. 부인, 그럼 부인만 믿고." 최병수는 어둠속으로 사라진다. 부인 김씨는 너무도 마음이 아팠다. 오래 간만에 만난 남편과 따뜻한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떠날 듯 보내 놓고 보니 김씨의 애간장은 에어내는 듯 아팠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남편이 떠난 조금뒤에 총소리와 함께 남편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최 병수씨의 귀가를 남몰래 지켜보던 이 마을의 친일파의 청년이 헌병에게 고해 바쳐 최 병수씨를 잡은 것이다. 그로 인해 최 병수씨는 더더욱 큰 뜻을 펴지도 못한 채 그간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날로 심해가는 고문에 우리의 독립운동가이신 최 병수씨는 그만 35세의 짧은 일기로 세상을 뜨게 되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 이 나라 조선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죽는게 한이 된다. 하지만 내 눈앞에 독립된 이 나라가 보인다. 저기 저 함성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군중들의 함성소리가 대한, 대한 독립 만세!"라고 끝으로 외치며 서서히 눈을 감으셨다.

8) 전통놀이 및 집단행사

산우물 마을에서는 1월초에 대동계를 하고 있으며, 정월 대보름에는 윷놀이를 통해 마을 화합과 단결을 다지고 있다.

집촌 마을은 정월 대보름날 부녀회에서 윷놀이를 하고 있으며, 용기축제가 있어 우리 지역에서 유일하게 전통용기를 만들어 오는 곳으로 전통용기를 저렴하게 관광객들에게 공급하는 수준에 있다.

9)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

十 열사 최 병수

열사 최병수께서는 일찍이 해주 문헌공 부사공과 후손 종사당 최 순의 장자로 서기 1885년 7월 25일에 태어나셨다. 충남 아산군 선장면 대정리가 열사의 고향이다. 열사께서는 당시 당진군 면천면 강문리 김 일식의 여식 경주 김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4남매의 자녀를 두셨다. 독립운동 활동중 체포되어 35세의 짧은 나이에 감옥에서 눈을 감으셨다. 그 당시 유가족들이 열사의 시신을 간신히 헌병들 손에서 인수하여 선영 밑에 모시려 하였으나 헌병측에서는 그를 반대하여 공동 묘지에 봉안하였다가 8·15해방과 더불어 자손들이 즉시 선영인 도고면 금산리에 안장한 것이다. 그후 열사 최병수씨는 해방이 되어 애국지사라는 사실을 정부에서 인정하여 1963년 3월 1일의 삼일절을 기하여 건국 공로 훈장을 받게 되었다.

10) 종교현황

산우물 마을에는 옛날에 마을에 천주교 강당이 있었는데 불타 없어졌으며,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도고역에 있는 도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

점촌 마을은 지금은 종교단체가 없다.

11) 공장현황

금산리에는 실을 만드는 합로연사, 플라스틱 공장인 덕원상사, 농업용 기계를 만드는 세원산업이 있다.

力합로연사 : 금산 204. 허가일 97. 7. 26. 면적 3,623㎡ 제사 및 견방적업

力덕원상사(주) : 금산 산 63-16. 허가일 89. 3. 6. 면적4,830㎡, 종업원수 14명,
산업용 플라스틱

力세원산업(주) : 금산 148-1, 허가일 92. 12. 28. 면적 2,364㎡. 종업원수 70명
농업용 기계 제조

12) 마을의 특성

산우물 마을은 도고산이 감싸 안고 있으며, 다른 마을에 비해 논이 적은편이며, 전형적인 시골마을로 농업을 생업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

점촌 마을은 점촌 남쪽에 있는 마을 과수원과 금산 소류지가 있으며, 마을에 예전에는 옹기 공장이 있으며, 그릇점이 운영되고 있고 옹기축제가 있는데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으면, 좋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